"Together As One Team" 페퍼저축은행, 한마음으로 도약 다짐

2024-2025시즌 출정식
선수단·팬 400여명 참석
출사표·토크쇼·사인회 등
"하나 돼 거침없는 전진"

"Brand New Peppers!" 장소연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했다. 창단 후 세 시즌 연속 최하위의 그림자를 '하나의 팀'으로 지워내겠다는 각오다.

페퍼저축은행은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2024~2025시즌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페퍼저축은행 선수단과 시즌 멤버십 구매자, 선착순 신청자 등 400여명이 함께 했다.

출정식은 오프닝 공연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과 퍼즐 퍼포먼스, 선수단 소개, 감독 및 주장 출사표, 선수단 토크 콘서트, 단체 사진 촬영, 선수단 팬 사인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은 등번호 순서에 맞춰 입장하며 새 시즌 슬로건으로 발표된 'Together As One Team'이 새겨진 대형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팬들에게 배포한 슬로건 티셔츠 역시 함께 착용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시즌 멤버십 구매자 및 선착순 신청자 등 400여명의 팬들과 함께 2024-2025시즌 출정식을 개최했다.

장소연 감독은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며 "선수들이 지난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새 시즌 슬로건이 'Together As One Team'이다. 하나의 팀으로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선수들이 팀워크를 중심으로 자신감을 갖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중석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코트 밖의 선수로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모든 힘을 쏟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장인 박정아 역시 "출정식에 많은 팬분들께서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비시즌 때 많은 준비를 했다. 올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도드람 2024-2025 V-리그가 오는 19일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공식 개막전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2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상대로 새 시즌을 출발한다. 홈 개막전은 오는 25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치른다.

V-리그의 전초전이었던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서 페퍼저축은행은 3전 전패(승점 1)의 아쉬운 성적 속에서도 하나로 뭉친 모습을 보였다. 바르바라 자비치의 컨디션 난조, 이원정과 이한비의 부상에도 장위와 박정아의 트윈 타워가 위력을 떨쳤고 한다혜와 이예림은 수비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새 시즌 슬로건인 'Together As One Team'과 출정식 슬로건인 'Brand New Peppers!'의 의미대로 하나 되어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겠다는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의 의지에 팬들도 힘차게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이날 출정식을 함께한 팬 이다빈 씨는 "창단 때부터 페퍼저축은행을 응원했는데 세 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장소연 감독님과 박정아 선수의 각오를 들으니 정말 기대가 된다. 이번 시즌에는 선수단에 팬들까지 한 팀이 되어 반드시 봄 배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체고 체조 문건영 "2년 연속 전국체전 7관왕 노릴 것"

지난해 전국체전 사상 첫 7관왕
각 종목 착지 기술 집중 연마
발목 부상 여파 극복이 관건
13일 종목별 예선·14일 결선

"2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7관왕을 노리겠습니다."

'한국 기계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 3년)이 11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밝힌 당찬 포부다.

문건영은 지난 2022년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양학선의 뒤를 잇는 한국 체조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22년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한국 기계체조 사상 최초로 고교 1학년생 개인종합 금메달 주인공과 함께 금 3개(개인종합·평행봉·도마)와 은 1개(철봉)를 획득하며 체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광주체고 문건영이 지난 8일 학교 체조장에서 평행봉 종목 기술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는 개인종합, 마루,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전국체전 104년 역사상 첫 7관왕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2023 기계체조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4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개인종합 3위를 차지, 생애 첫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문건영은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7관왕을 목표로 삼았다.

문건영의 7관왕 달성 관건은 발목 부상 여파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문건영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11회 시니어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종목 결선에서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2개월 동안 발목 근력과 인대 강화 등 재활훈련에 매진하며 발목 상태를 호전시켰고, 8월부터는 전문체력 및 종목별 기술훈련을 병행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8월 11~14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체조대회에 6개 종목 중 안마, 링, 평행봉, 철봉 등 4개 종목만 출전해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전국체전 대비 실전 점검도 마쳤다.

현재 발목 상태를 90% 정도 끌어 올린 문건영은 경기 당일까지 100% 회복 훈련과 부상 여파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전 종목에 걸쳐 감점을 줄이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완벽하게 착지하는 기술을 집중 연마하고 있다.

문건영은 오는 13일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기계체조 단체종합과 6개 종목 예선을 치른 뒤 14일 6개 종목 결선에 나선다.

문건영은 "발목 부상 이후 꾸준히 재활하면서 100% 가까이 몸 상태를 만들었다. 남은 기간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것이다"며 "내년에 타 지역 실업팀 입단 예정이어서 올해가 광주 마크를 달고 뛰는 마지막 전국체전인 만큼 광주체고와 광주 체육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다시 7관왕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감독은 "(문)건영이가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각오가 예년보다 더 강하다. 훈련한 대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한다면 4~5개의 금메달은 충분히 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부상 재발 방지를 위해 무리하지 않도록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한국시리즈 준비 완료' KIA 네일, 첫 실전서 151㎞ "쾅"

9일 상무 피닉스와 연습경기
선발 등판… 9타자 31구 소화

턱관절 골절을 털고 돌아온 '투흔의 에이스'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이 한국시리즈 1선발 낙점에 청신호를 켰다. 첫 실전 등판에서 직구 최고 구속 151㎞를 찍으며 확실한 구위를 과시했다.

네일은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상무 피닉스와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아홉 타자를 상대로 피홈런 한 개를 제외하고 여덟 개의 아웃 카운트를 수확했다.

네일은 1회초 류승민을 2루수 플라이, 박찬혁과 한동희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부상 이후 첫 실전을 순조롭게 출발한 네일은 마운드를 내려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설치했던 배팅볼 투수 보호망을 치워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보호망을 제거한 네일은 2회초 선두 타자 이재원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며 선제 실점했다. 하지만 박정현을 우익수 플라이, 조세진을 삼진, 정민규를 2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2이닝을 1피안타(1피홈런) 1실점으로 정리했고, 투구 수가 예정했던 30~40구에 미치지 못해 양 팀 사전 합의에 따라 등판을 이어갔다.

네일은 김재상을 삼진, 김선우를 2루수 플라이로 아웃시키며 아홉 타자를 모두 상대했다. 투심 패스트볼과 스위퍼, 체인지업, 커터, 직구 등 여러 구종을 고루 점검하며 총 31구를 소화했고 직구 최고 구속은 151㎞를 찍었다.

네일에 이어 양현종과 에릭 라우어, 윤영철 등 선발 자원들도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2이닝 씩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점검했고 마지막 투수로는 불펜 자원인 곽도규가 1이닝을 던졌다.

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이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상무 피닉스와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초 수비를 삼자범퇴로 마친 뒤 박수를 치며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